

5/26/19

설교 제목: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5:1-20

- (막 5: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 (막 5: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 (막 5: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절관주** 잠 21:16, 민 19:11
- (막 5: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 (막 5: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 (막 5: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 (막 5: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절관주** 마 25:41
- (막 5: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 (막 5: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 (막 5:10)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 (막 5: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 (막 5:12)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 (막 5: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절관주** 왕상 22:22, 욥 1:12, 욥 2:6
- (막 5: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 (막 5: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절관주** 단 4:36, 딤후 1:7

- (막 5: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 (막 5:1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절관주 욥 21:14
- (막 5: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 (막 5: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 (막 5: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는 계속 항해를 하여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도착하셔서 군대 귀신들린 자를 만나 귀신을 내쫓고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 (막 5: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 (막 5: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당시 거라사인이 사는 땅에는 큰 묘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귀신들린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 (막 5: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 (막 5: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 (막 5: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여 날뛰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제어해 보려고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찌나 힘이 세던지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려 버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를 방치하였고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막 5: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막 5: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와 절을 합니다.

귀신들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눈에 알아 본 것입니다.

원래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봅니다.

(약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귀신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애원합니다.

왜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답이 바로 나옵니다.

(막 5: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당신 앞에 절하는 사람을 보고 바로 그 안에 귀신이 있음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정체를 들켜버린 귀신들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이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눅 8: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후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 마귀 귀신들을 잡아다 무저갱에 집어 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아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지금 당장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신상 조사를 하십니다.

(막 5: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막 5:10)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귀신은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로는 'legiwn'(레기온)으로 6,000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군단을 말합니다.

수로나 힘으로나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과 세력이 엄청난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귀신들이 자신들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라기 보다는 세상에서 쫓아내어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귀신들은 마침 산 기슭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 떼를 보더니 예수님께 자신들을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 달라고 청합니다.

(막 5: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막 5:12)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은 이제 예수님께 자신들의 정체를 들켰으니 더 이상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에 계속 머물 수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어차피 자신들을 그동안 기거하고 있던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할 것이 분명했기에 미리 선수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허락하십니다.

(막 5: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귀신들이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고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자 예수님은 그것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사실을 목도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해 읍내와 여러 마을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고 그들은 이를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막 5: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막 5: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은 돼지를 치던 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그들의 처사가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야 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외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러기는 커녕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막 5: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막 5:1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권세가 있으신가에 대해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적인 손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앞으로 어떤 더 큰 손해를 볼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을 찾아왔는데 그분을 영접하기는 커녕 도리어 내쫓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주실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 돼지를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거라사인 지방을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막 5: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막 5: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자 귀신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렸다가 구원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귀신들렸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데가볼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놀라워 하였습니다.

(막 5: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친히 거라사인의 지방을 방문하셔서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을 사단의 지배로부터 풀어 줄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시다.

그러나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볼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런 일이 비단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제정신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몇명 없습니다.

제 아는 분은 며칠 전 친적 여자 아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웬 엄마같은 돈 많은 것 같아 보이는 여자가 신랑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혼비 백산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싱가포르 국부로 추앙받는 초대 총리 리관유 손자이자 현 총리 리셴룽의 아들 리환우가 남아공에서 동성 결혼을 했고 그 소식을 접한 싱가포르 국민 대다수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 동성 결혼 뿐입니까?

결혼 생활에 순결이 무너진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짓거리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돈이 신이 되어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서슴치 않고 합니다.

요즈음 몇몇 주들이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하자 자칭 경제적인 센스가 있고 머리가 잘 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폐해에 대해 우려를 하기는 커녕 그것을 재배해 사람들에게 팔아 돈 벌 궁리들만 합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들이 들려 미친 것입니다.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수 뿐만 아니라 힘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들린 사람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하실 때 군대 귀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머물 수 없음을 알고 자진해서 나왔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하셔서 그것들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면서까지 극구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군대 귀신이 들려 사단의 지배를 받아 험하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찾으신 이유는 귀신들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험하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우리에게 크나 큰 기회이고 복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과 같이 금전적 타산으로 이같은 큰 기회와 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보자 당장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고침받고 구원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예수님께 고침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